

건강 칼럼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치료 성적 갈수록 눈에 띄네

췌장암은 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가장 흔한 유형은 췌장암의 95%를 차지하는 췌장 선암이며,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장 선암을 일컫는다. 췌장암은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7번째의 암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진단 환자수(49만6000명)와 사망자 수(44만6000명)가 거의 비슷한 치명적인 질환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췌장암은 2019년 기준 8099명의 환자가 발생해 발생률은 주요 암종 8위 (3.2%)에 해당하지만, 2021년 기준 6931명이 사망해 5번째의 암 사망률(8.4%)을 보여줬다. 이 같이 매우 좋지 않은 예후에도 불구하고, 잠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치료 성적의 개선이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암 치료 성적인 5년 생존율의 경우 미국에서는 1990년대 5% 미만에 그치던 생존율이 2002년에는 6%, 2021년은 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도 2010년 이전까지 5년 생존율은 8% 선에서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2015~2019년 사이에는 13.9%로 큰 상승을 보여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고 있다.

췌장암의 발병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유전적, 환경적 원인이 복합한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교정 가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 음주, 비만 등이다. 유전적인 원인으로 알 발병에 20~30% 정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국내 2019년 기준 10만명당 약 16명 정도의 조발병률을 보일 만큼,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은 아니



김재환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기 때문에 췌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가족력이나 혹은 앞서 언급한 특정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선별 및 조기 진단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점진적인 췌장암 마커인 CA 19-9는 췌장암 환자의 치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췌장암을 예측하는데 매우 낮은 효용성을 보인다.

이에 더 나은 마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췌장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치료가 3가지 핵심이다. 각 치료법의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수술에서는 최근 복강경이나 로봇과 같은 최소 침습수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항암화학치료는 2~3개의 약제 조합을 통해 이전에 비해 의미 있는 치료 성적의 개선이 보고돼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방사선 치료에서는 과거에 비해 앞에 전달되는 치료 효과는 극대화되면서 주변 장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성자 혹은 중입자 치료도 이용되거나 혹은 가능 예정이다. 다만, 췌장암 치료를 위해 앞서 언급한 한가지 치료법만으로는 불완전한 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이다.

췌장암은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한 1, 2기 환자가 15~20%에 불과할 정도로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적고 특히 진단 당시 영상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미세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술 후 6개월 이내 재발율이 약 50%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 수술 받은 환자의 70%에서 재발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수술 후 보조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술 전 선형 치료

를 통해 수술 성적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치료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3, 4기에서는 최근 2, 3개 약제를 조합한 복합항암치료를 통해 눈에 띄는 치료 성적의 개선이 보고 되고 있다. 그 결과 3기 국소 진행성 췌장암에서는 약 20%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보고들이 있고, 4기 췌장암에서도 중간 생존 기간이 1년 가까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에서 과거에는 1차 항암제 이후 2차 치료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2, 3차 치료까지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으며 1차 뿐 아니라 2, 3차 치료제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해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경감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각광받는 면역 치료제 또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시도가 췌장암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비록 면역 치료제의 효과는 아직 충분치 않지만, 잘 알려진 BRCA 유전자의 생식세포 변이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PARP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가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췌장암은 난치 질환임에 틀림 없으나 최근 의학 기술의 눈부시고 빠른 발전은 췌장암에서도 의미 있는 치료 성적의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따라서, 췌장암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 인자의 개선 노력과 함께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도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사설

옛 대한방직 개발 문제

옛 대한방직 자리를 놓고 개발이나 특혜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그러나 결국 개발 주체인 (주)자광이 어떤 결정을 내놓고 이를 인정하느냐가 올바른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전북도의회는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발제자가 △개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주)자광 및 관계사 재무상황 △부지개발 실태와 올바른 개발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시민단체와 시·도의원 중심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사업 시행자의 '먹튀'와 특혜 시비가 여전하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과도한 만큼 행정에서의 확실한 개발 이익 환수 절차와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미 논의 끝에 의결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와 지침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이득 토지환수 40%, 상업용지 40~60%, 공공시설 등 기여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칙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사전 협상 등의 모든 협상 과정과 결정 시점의 시민 공개는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투명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결국 공론화위원 권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자광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행정의 협조, 긍정적인 지역은 물론 속도감 있는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 공개 토론회에 개발 주체자의 합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란의 한국정부 불충분 반응

최근 대한민국의 외교 참사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외교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외교 참사가 터져 언론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적(敵)'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한 뒤 처음 나온 반응이다. 이란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적(敵)'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불충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23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

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양국의 대사 맞초치 이후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걸프 해역을 '아라비아만'이라고 지칭한 이라크·중국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이란 외무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란 외무부는 동결자금 반환 약속 이행을 우리나라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동결 자금 문제는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70억 달러 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외교 참사의 수습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 안보 불안도 가중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지도자의 신중한 발언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신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크리스 힉킨스, 뉴질랜드 제41대 총리 취임



크리스 힉킨스(왼쪽) 뉴질랜드 신임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웰링턴에서 제41대 총리 취임 선서 후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지구 파멸까지 90초” 운명의 날 시계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 원자력과학자회 관계자들이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자정 지점까지 단 90초만을 남긴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공개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